

##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착의행동 비교

-의복형태별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재경\* · 남윤자\*\* · 최경미\*\*\* ·

Takabu Hiroko\*\*\*\* · Hiraoka Wakako\*\*\*\*\* · Fuseya Setsuko\*\*\*\*\*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동서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Jissen Women's University 교수\*\*\*\* ·

Jissen Women's University 교수\*\*\*\*\* · Wayo Women's University 부교수\*\*\*\*\*

### A Comparison of Apparel Behavi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Ideal Clothing and Actual Clothing Behavior-

Jae-Kyung Park\* · Yun-Ja Nam\*\* · Kueng-Mi Choi\*\*\* ·

Takabu Hiroko\*\*\*\* · Hiraoka Wakako\*\*\*\*\* · Fuseya Setsuko\*\*\*\*\*

Conservato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ul College\*\*\*

Professor, Jissen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Jisse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Wayo Women's University\*\*\*\*\*

(2003. 10. 23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ideal clothing and actual clothing behavi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185 Korean students and 91 Japanese students were used into data analysis from October to December, 2000. The age range was 18 to 28 year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 1) Japanese students wanted to wear fitted clothing styles with revealing the body, while Koreans wanted to wear not only fitted styles but also relaxed and covered body styles.
- 2) Korean students wore more loose styles and fitted upper styles and pants than Japanese students. On the other hand, Japanese students wore fitted clothing styles and skirt.
- 3) Japanese students showed higher correlation between ideal clothing styles and actual clothing styles than Koreans. This means that although Koreans want to wear ideal styles, they don't wear those styles much.
- 4) Overweight students tended to avoid wearing fitted and revealed body styles, pursuing more loose and covered body styles. This tendency showed stronger to Koreans than Japanese students.

Key words : ideal clothing behavior(희망착의행동), actual clothing behavior(실제착의행동), clothing styles(의복 형태),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한국·일본 여자 대학생).

## I. 서 론

현대사회는 다양한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시각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시각적인 면을 중시하는 결과를 낳아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 때문에 외모에 대한 불만이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영상문화세대로 불려질 만큼 시각적인 문화와 밀접하게 성장하여 이상적인 체형이나 유행 의복 등,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젊은 여성들은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여, 타 연령층보다 가늘고 긴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수용도도 높다.<sup>1)~6)</sup> 특히 하반신에 대한 불만족이 큰데 인지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착의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에 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을, 신체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드러내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sup>4)7)</sup> 박재경, 남윤자<sup>8)</sup>는 한국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착의행동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의복의 착용여부를 결정할 때, 상반신은 신체 크기 인식과는 관련이 적어 유행이나 선호 취향에 의해 결정하는 반면, 하반신은 신체크기 인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여, 하반신에 불만족하는 경향과 일치하였다.

또한 20대는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의복선택에 있어 유행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종이나 실루엣 면에서 다양한 유행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행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고려한 의복의 선택이 가능하다. 어떤 옷에 대하여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옷이 현재 사회에서 유행되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의복형태에 대해 입고

싶은 정도(이하 희망착의행동)와 실제로 입는 정도(이하 실제착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실제착의정도와 신체에 대한 비만인식의 관계를 규명해봄으로써 실제착의행동에 있어서 유행과 신체인식의 영향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에 착의를 희망하는 의복형태와 실제로 착의되고 있는 의복형태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착의행동에 있어서의 신체비만인식의 영향도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인 위치, 인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을 갖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여자 대학생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신체의 비만인식과 착의행동 간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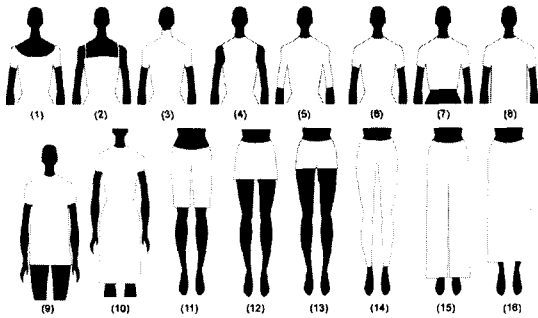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여대생에 대하여 첫째, 의복형태별 착의를 희망하는 정도, 둘째, 의복형태별 실제 착의하는 정도, 셋째,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 간의 상관관계, 넷째, 신체비만인식과 실제착의행동 간의 상관관계, 다섯째, 의복착용의 일반적 경향 등을 조사하여 비교 고찰한다.

### 2. 설문항목

설문은 크게 희망착의행동, 실제착의행동, 신체비만인식, 의복착용의 일반적 경향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희망착의행동은 각 의복형태에 대하여 입고 싶은 정도를, 실제착의행동은 실제 입었던 빈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복형태는 그림으로 제시

하였으며, <그림 1>과 같다. 이 때 사용된 의복형태는 박재경, 남윤자<sup>8)</sup>의 연구를 참고로 선정하였으며, 체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신체 실루엣이나 피부면이 노출 또는 은폐되는 형태로 하였고, 여름 의복으로 한정하였다.



<그림 1> 설문에 사용된 의복형태

신체비만인식은 상반신, 하반신, 전신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비만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유행과 체형결점보완의 고려정도, 스커트와 슬랙스의 선호정도, 선호하는 의복 실루엣에 대하여 선다형식으로 구성하여 해당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한국과 일본의 18~28세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0년 10~12월에 설문조사를 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Röhler Index를 구하기 위하여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다. 한국 185명, 일본 9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신체측정치는 <표 1>과 같다.

<표 1> 국가별의 신체측정치

측정항목	한국		일본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cm)	160.32	4.90	158.81	5.13	2.183*
몸무게(kg)	52.58	7.36	50.69	6.64	1.877

모든 자료는 SPSS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희망착의행동, 실제착의행동, 신체비만인식

등에 대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검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 여대생을 비교하였다. 의복착용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용어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신체 비만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1) Röhler Index(RI): RI가 1.2미만이면 수척, 1.2~1.5이면 정상, 1.5이상이면 비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text{Röhler Index} = \frac{\text{몸무게(kg)}}{\text{키}^3(\text{cm})} \times 10^5$$

(2) 주관적 비만인식: 자신의 상반신, 하반신, 전신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비만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뚱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

#### 1) 희망착의행동의 비교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의복형태별 희망착의행동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국은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2.81)와 짧은상의(2.5)를 제외한 모든 의복형태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착의를 희망한 반면, 일본은 짧은상의(1.73), 짧은반바지(2.1)에 대해 착의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의복형태들에 대한 착의 희망정도가 낮았다. 희망착의행동의 점수가 높은 5가지의 의복형태를 각 나라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다리여유긴 슬랙스, 몸통상부여유상의, 몸통상부밀착상의, 긴스커트, 슬리브리스상의 순이며, 일본은 슬리브리스상

<표 2> 희망착의행동의 비교

순번	의복명	한국		일본		t-검정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데콜따주상의	3.13	1.13	<b>3.38</b>	1.17	-1.564
2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2.81	1.22	3.09	1.24	-1.594
3	하이네크라인	3.01	0.98	2.80	1.31	1.380
4	슬리브리스상의	<b>3.50</b>	1.09	<b>3.63</b>	1.22	-0.825
5	피티드슬리브상의	3.38	0.98	3.32	1.06	0.414
6	몸통상부밀착상의	<b>3.57</b>	0.89	<b>3.34</b>	0.99	1.847
7	짧은상의	2.50	1.28	1.73	1.11	4.726***
8	몸통상부여유상의	<b>3.57</b>	0.76	2.64	1.08	6.563***
9	긴상의	3.11	0.93	2.55	1.02	4.148***
10	몸통밀착원피스	3.46	1.15	3.32	1.14	0.832
11	힙본슬랙스	3.31	0.96	3.20	1.24	0.672
12	짧은스커트	3.16	1.32	<b>3.36</b>	1.22	-1.079
13	짧은반바지	3.31	1.37	2.10	1.13	7.126***
14	다리밀착긴슬랙스	3.38	1.14	<b>3.47</b>	1.17	-0.569
15	다리에유긴슬랙스	<b>3.58</b>	0.86	2.39	1.19	7.638***
16	긴스커트	<b>3.57</b>	0.95	2.96	1.30	3.579**

\*\*p<0.01 \*\*\*p<0.001

■ 표시는 희망착의행동 점수 상위 5위

<표 3> 실제착의행동의 비교

순번	의복명	한국		일본		t-검정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데콜따주상의	1.76	0.89	<b>2.10</b>	0.98	-2.614**
2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1.31	0.68	1.99	1.08	-4.873***
3	하이네크라인	1.92	0.86	1.77	0.90	1.166
4	슬리브리스상의	2.07	1.02	<b>2.66</b>	1.25	-3.496**
5	피티드슬리브상의	<b>2.25</b>	0.96	<b>2.38</b>	0.99	-0.954
6	몸통상부밀착상의	<b>2.63</b>	1.00	<b>2.64</b>	1.03	-0.079
7	짧은상의	1.26	0.58	1.09	0.45	2.453*
8	몸통상부여유상의	<b>3.41</b>	1.07	2.10	1.14	8.517***
9	긴상의	<b>2.55</b>	1.14	1.61	0.95	6.509***
10	몸통밀착원피스	1.41	0.74	1.52	0.78	-1.082
11	힙본슬랙스	2.22	1.05	1.89	1.10	2.203*
12	짧은스커트	1.38	0.74	<b>2.13</b>	1.10	-5.274***
13	짧은반바지	1.51	1.05	1.17	0.62	3.166**
14	다리밀착긴슬랙스	1.68	0.90	1.77	1.09	-0.631
15	다리에유긴슬랙스	<b>3.29</b>	1.09	1.65	1.03	10.761***
16	긴스커트	2.05	0.97	1.67	0.92	2.836**

\*\*p<0.01 \*\*\*p<0.001

■ 표시는 희망착의행동 점수 상위 5위

의, 다리밀착긴슬랙스, 데콜따주상의, 짧은스커트, 몸통상부밀착상의 순이었다.

여러 사람이 입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복형태는 유행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신체가 밀착, 노출되는 형태와 신체에 여유있

는 형태 모두 다양하게 유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신체에 여유있는 의복형태보다는 신체에 밀착되고 노출이 큰 의복형태에 대한 유행 경향이 더 크다고 해석된다. t-검정 결과 대부분의 여유있는 의복형태에서 한일 간에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도 이

러한 결과가 확인되어, 몸통상부여유상의, 긴상의, 다리여유긴슬렉스, 긴스커트 등과 같은 여유있는 의복형태에서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에 비하여 차이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았다.

2) 실제착의행동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의복형태별 실제착의행동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국은 몸통상부여유상의(3.41)와 다리여유긴슬렉스(3.29)가 다른 의복형태(1.26~2.63)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일본은 짧은상의(1.09)와 짧은반바지(1.17)을 제외한 모든 의복형태에 대한 점수가 1.52~2.66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두 나라 모두 실제로 다양한 의복형태를 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착의행동의 점수가 높은 5가지의 의복형태를 각 나라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몸통상부여유상의, 다리여유긴슬렉스, 몸통상부밀착상의, 긴상의, 피티드슬리브상의 순이며, 일본은 슬리브리스상의, 몸통상부밀착상의, 피티드슬리브상의, 짧은스커트, 데꿀따주상의 순이다.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의복형태 중에서 한국의 실제착의빈도가 높은 형태는 몸통상부여유상의, 긴상의, 긴스커트, 짧은상의, 다리여유긴슬렉스, 힙본슬렉스, 짧은반바지 등으로 대부분이 신체에 여유있는 형태이거나 슬렉스이다. 일본의 실제착의빈도가 높은 형태는 데꿀따주상의,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슬리브리스상의, 짧은스커트 등으로 대부분 노출이 큰 형태이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은 상하 모두 여유있는 형태나 상의는 밀착되고 하의는 여유있는 형태, 그리고 슬렉스 종류에 대해 일본 여대생보다 실제 착의빈도가 높은 반면 일본 여대생은 상하 모두 밀착되거나 노출이 큰 의복형태, 그리고 스커트 종류에 대해 한국 여대생보다 실제 착의빈도가 높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에 차이를 보였다.

3)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상관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두 나라의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상관을 비교해 보면 힙본슬렉스를 제외한 의복형태에서

<표 4>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상관

번호	의복형태	한국	일본
1	데꿀따주상의	0.483***	0.581***
2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0.172*	0.558***
3	하이네크라인	0.516***	0.595***
4	슬리브리스상의	0.366***	0.587***
5	피티드슬리브상의	0.354***	0.479***
6	몸통상부밀착상의	0.324***	0.542***
7	짧은상의	0.183*	0.213
8	몸통상부여유상의	0.463***	0.686***
9	긴상의	0.455***	0.559***
10	몸통밀착원피스	0.196**	0.198
11	힙본슬렉스	0.472***	0.461***
12	짧은스커트	0.179*	0.541***
13	짧은반바지	0.076	0.315**
14	다리밀착긴슬렉스	0.293***	0.507***
15	다리여유긴슬렉스	0.438***	0.671***
16	긴스커트	0.178*	0.442***

\*p≤0.05 \*\*p≤0.01 \*\*\*p≤0.001

한국보다 일본여대생이 큰 상관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도 한국은 0.172~0.516의 분포인데 비해 일본은 0.315~0.686의 분포로 한국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 여대생의 경우 다양한 의복형태에 대해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 착의빈도가 높은 의복형태는 2~3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 간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일본 여대생은 실제착의빈도의 고저에 관계없이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착의 희망 여부에 따라 실제 착의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2. 비만도와 실제착의행동

1) 신체 비만도

Röhrer Index와 신체 비만에 대한 인식은 <표 5>와 같다. 모든 비만도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별 Röhrer Index에 의한 비만분류에 따르면 비만집단은 한국이 8.1%, 일본이 5.6%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정상, 또는 마른체형으로 나타났다(표 6). 그러나 비만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며, 특히 하반신비

만인식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한일 여대생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비만도보다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국가별 신체 비만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Röhrer Index	1.276	0.168	1.267	0.135	0.391
전신비만인식도	3.27	0.93	3.34	0.86	-0.531
상반신비만인식도	3.08	1.02	3.08	0.94	-0.063
하반신비만인식도	3.70	0.96	3.73	0.86	-0.227

<표 6> 국가별 Röhrer Index에 의한 비만분류 분포

비만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1 (27.0)	66(35.7)	104(56.2)	15(8.1)	185(100)	
2 (32.4)	23(32.4)	44(62.0)	4(5.6)	71(100)	

2) 비만도와 실제착의행동과의 상관

비만도와 실제착의행동과의 상관계수는 <표 7>과 같으며, 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을 표시하였다. 의복형태별 상관은 신체에 피트되는 의복형태에

<표 7> 비만도와 실제착의행동과의 상관

의복형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하반신 비만 인식	RI
1 데콜타주상의	-0.219**	-0.186*	-0.155*	-0.201**			
2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3 하이네크라인							
4 슬리브리스상의	-0.375***	-0.410***	-0.261***	-0.421***	-0.323**	-0.263*	-0.270*
5 피티드슬리브상의	-0.379***	-0.344***	-0.282***	-0.391***		-0.250*	-0.236*
6 몸통상부밀착상의	-0.369***	-0.383***	-0.288***	-0.336***			
7 짧은상의							
8 몸통상부여유상의							
9 긴상의	0.195**		0.147*	0.204**			
10 몸통밀착원피스	-0.175*		-0.205**	-0.201**			
11 헐본슬렉스	-0.167*	-0.169*	-0.161*	-0.177*			
12 짧은스커트	-0.240**		-0.321***	-0.194**			
13 짧은반바지	-0.302***	-0.202**	-0.256***	-0.187*			
14 다리밀착긴슬렉스			-0.146*				
15 다리여유긴슬렉스							
16 긴스커트					0.308**	0.334**	0.304**

\*p<0.05 \*\*p<0.01 \*\*\*p<0.001

서는 (-)상관이, 신체에 여유있는 의복형태에서는 (+)상관이 나타났다. 즉, 비만도가 클수록 신체에 밀착되거나 노출되는 의복형태의 착의빈도는 낮고, 신체에 여유있거나 신체를 은폐할 수 있는 의복형태는 착의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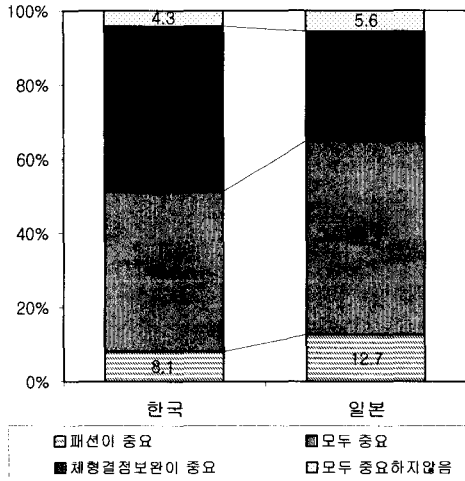
두 나라의 비만도에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부분의 의복형태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 슬리브리스상의와 피티드슬리브상의, 다리밀착무릎슬렉스, 긴스커트 등의 4가지 의복형태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일본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실제 착의하는 의복형태의 선택에 있어 체형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유있는 의복형태에 있어서는 한국도 상관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유있는 의복형태의 유행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만도에 관계없이 착의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적인 유행 스타일의 체형 노출정도에 따라서 착의행동시 체형의 고려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의복착용의 일반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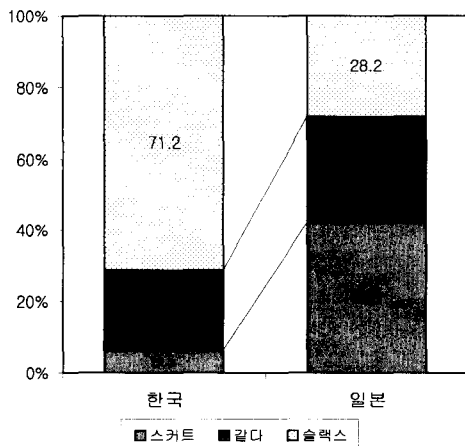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의복착용시 전반적인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해 유행과 체형결점보완의 고려정도, 스커트와 슬랙스의 선호정도, 선호하는 의복 실루엣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chi^2 = 4.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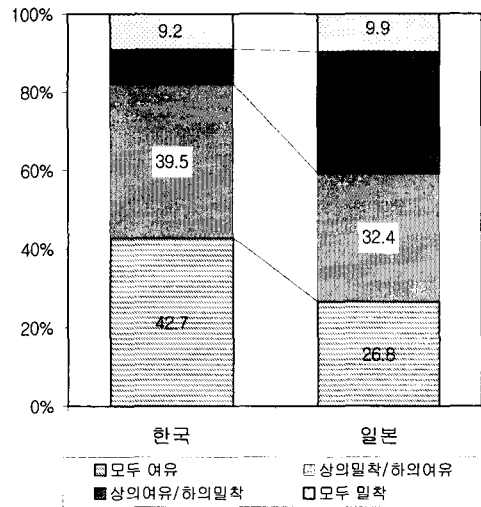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의복선택시 고려사항



$\chi^2 = 56.851^{***}$   $***p \leq 0.001$

<그림 3> 국가별 스커트와 슬랙스의 선호도

의복선택시 유행과 체형적인 결점 보완 중 어느 것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유행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보이나 카이제곱검



$\chi^2 = 24.276^{***}$   $***p \leq 0.001$

<그림 4> 국가별 의복실루엣의 선호도

정 결과 유의차는 인지되지 않았다. 스커트와 슬랙스 중 자주 착용하는 아이템은 한국은 슬랙스, 일본은 스커트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 실제착의행동에서 착의빈도가 높은 의복형태와 일치하였다.

선호하는 의복 실루엣은 상체와 하체의 피트정도의 조합에 의해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한국은 상하의 모두 여유있는 형태와 상체는 피트되고 하체는 여유있는 형태에 전체의 82.3%가 응답하여 실제로 착용되는 스타일이 이 2가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상하 모두 밀착되는 형태를 제외한 3가지 형태에 응답이 고르게 분산된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착의행동에서 짧은상의와 짧은반바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복형태에서 고른 착의빈도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볼 때 일본은 다양한 의복형태가 다양한 조합으로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체형이나 환경 및 문화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는 일본을 대상으로 착의행동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두 나라 여대생의 착의를 희망하는 의복형태와 실제로 착용되고 있는 의복형태

의 차이를 비교하고, 착의행동에 있어 체형의 영향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희망착의행동에서 한국 여대생은 신체가 밀착, 노출되는 형태는 물론 신체가 은폐되고 여유있는 형태도 착의를 희망하는 반면, 일본 여대생은 신체에 밀착되고 노출이 큰 의복형태에 대해서만 착의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몸통상부여유상의, 긴상의, 다리여유긴슬랙스, 긴스커트 등에서 한국 여대생이 착의를 희망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 실제착의행동에서 한국 여대생은 상하 모두 여유있는 형태나 밀착되는 상의, 그리고 슬랙스 종류에 대해 실제 착의빈도가 높았다. 반면 일본 여대생은 상하 모두 밀착되거나 노출이 큰 의복형태, 그리고 스커트 종류에 대해 실제 착의빈도가 높아 실제 착의하는 의복형태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3) 두 나라의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상관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의복형태에서 한국보다 일본여대생이 큰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 여대생은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착의하지 못하는 의복형태가 존재하는 반면 일본 여대생은 자신의 착의 희망여부에 따라 실제 착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객관적, 주관적 비만도에 따른 의복형태별 실제착의경향을 고찰한 결과 비만도가 클수록 신체에 밀착되고, 노출되는 의복형태의 착의빈도는 낮고, 신체에 여유있고 은폐되는 의복형태는 착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실제착의행동과 비만도의 상관성이 대부분의 의복형태에서 낮게 나타나 일본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실제 착의하는 의복형태의 선택에 있어 체형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복형태가 현재 유행의 범주에 있는 의복형태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유행 경향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행하고 있는 의복형태들 중에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체형을 고려하여 실제 착의할 의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희망착의와 실제착의가 차이를 나

타내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체형에 상관없이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유행스타일이 존재하나 실제로 착의하는 의복형태는 2~3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은 좀 더 다양한 의복형태가 실제로 착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보다 피트되고 노출이 큰 의복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또한 착의행동에서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에 비해 체형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여름, 한국과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경향을 패션잡지<sup>9)10)</sup>를 통해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매우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전체 실루엣의 파악이 가능한 의복 형태(한국=155개, 일본=112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상하의 모두 여유있는 형태(60.0%)나 상체는 피트되고 하체는 여유있는 의복 실루엣(23.2%)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상체는 여유있고 하체는 밀착되는 형태(1.9%)는 매우 적은 반면 일본은 4가지 스타일 모두 21~30%로서 유사한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스커트와 슬랙스의 구성비율은 한국은 37.4 : 62.6, 일본은 76.7 : 23.3으로 나타나 매우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유행스타일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실제착의행동의 경향과 일치하며, 한국 여대생의 경우 착의를 희망하는 의복형태는 다양하나 실제로 착의하는 의복형태는 한두 스타일에 집중되었던 결과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과 일본에서 유행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타일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많이 착의되는 스타일은 나라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잡지에 나타난 사진 분석을 통해 추출한 각국의 대표적인 의복스타일은 <그림 5>와 같다.

따라서 현재 세계적인 유행 트렌드의 테두리 안에서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유행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유행스타일의 차이는 일본과 관련된 의류의 수출입시 의류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적절히 사용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한국과 일본의 두세 개 대학에서 표집된 자료이기 때문





<한국>



<일본>

<그림 5> 국가별 착의빈도가 높은 의복스타일

에 전체 여대생집단에 적용시키는 데는 제한점을 갖 으며, 여대생이외의 다른 연령층에도 한국과 일본 간 에 유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연 령층을 확장하여 착의행동을 비교, 고찰해 본다면 한 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7) 박우미 (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 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pp. 25-36.
- 8) 박재경, 남윤자 (1999).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 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pp. 1149- 1160.
- 9) KiKi (2000). 7월호.
- 10) Cindy THE Perky (2000). 7월호.

### 참고문헌

- 1) 박우미 (1993). 우리 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pp. 163-180.
- 2)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3)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 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pp. 29-39.
- 4) 植竹桃子 (1988).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瘠せの意 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pp. 711-723.
- 5) Douty, H. I., & Brannon, E. L. (1984). Figur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pp. 122-137.
- 6)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pp. 196-203.